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43호

체육계 인권보호 '절실'

“뺨따귀 맞은 걸로 일 크게 만들어”...

女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린 파렴치한 승마 선수들

황진영 더팩트 기자

‘대한항공 탁구팀 괴롭힘 사건’...스포츠윤리센터 ‘가해자 중징계’ 통지

김영봉 아시아타임즈 기자

교육부·기개 지자체 “빙상선수 인권보호 방안 권고 불수용”

금준혁 뉴스1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

“성전환 선수 호르몬 수치 기준 없애야”...IOC 새 권고안 발표

신진호 서울신문 기자

불법스포츠도박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리고 불법도박...30대 체육회 직원 2심도 실형

이종재 뉴스1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www.sportscm.org

“뺨따귀 맞은 걸로 일 크게 만들어”... 女후배 기절할 때까지 때린 파렴치한 승마 선수들

올해 초 '故 최숙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체육계 인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시금 고질적인 '체육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다.

MBC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승마대회를 하루 앞둔 여자 후배 선수를 남자 승마선수들이 폭행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전국 단위 승마 대회를 하루 앞둔 시점인 지난 12일 밤, 경북 상주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에는 남자 승마선수 A씨(20)가 후배인 여자 승마선수 B씨의 목을 강하게 가격한 뒤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후 이들은 B씨를 밀어 쓰러뜨린 다음 배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선수 3명이 주차장으로 와 B씨의 상태를 살핀 후 B씨를 일으켜 세워 모텔 방으로 옮겼다. 당시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절한 후 정신을 찾은 B씨는 "선배들이 두 시간동안 모텔방에서 '별일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폭행을 당한 이유는 'A씨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폭행 사흘 만에 A씨는 B씨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정말 미안하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많이 반성 중이고 후회 중"이라며 "너만 괜찮다면 너 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얼굴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폭행 현장을 찾았던 다른 선배 선수들은 "강제로 방에 데리고 간 건 아니다"며 "화해시키려 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사건 충격으로 이튿날 대회 출전을 포기했지만 가해 선수와 선배들은 대회에 정상 출전했다. 결국 피해자 측 코치가 가해자 측 코치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 측 코치는 "무슨 기집애 하나 뺨따귀 하나 맞은 걸로 일을 크게 만들어, 까불어 가지고 한대 때렸다고 뭐 어쩌라고 XX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계속 욕을 하면서 야, 일어나! XXX아, 일어나! 죽은 척하지 마 일어나"라며 "힘이 빠진 저를 그냥 물건 집어들 듯이 짐 옮기는 듯 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슬프고 수치스러웠다"며 당시 참담했던 심경을 고백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선수의 심리 치료와 폭행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단독] '대한항공 탁구팀 괴롭힘 사건'... 스포츠윤리센터 '가해자 징계' 통지

대한항공 탁구팀 집단 괴롭힘 사건을 조사했던 스포츠윤리센터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제주체육회)에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사건은 지난 5월 본지가 피해선수 A씨와 만났고 [대한항공 탁구팀 괴롭힘]이라는 내용으로 집중 보도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 해당사건이 폭력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실로 인정됐으며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구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괴롭힘과 폭력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통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해당 기관이 가해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있는 사이 피해선수는 여전히 폭행과 폭언을 가한 가해선수와 한 공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항공 탁구팀은 제주체육회에 소속돼 있다.

19일 아시아타임즈가 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처리 결과통지(대한항공 탁구선수 집단 괴롭힘)서'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가해자로 지목받은 선수들에 대해 "대한항공 탁구선수 B씨의 폭행, 폭언, 사생활 통제,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와 또 다른 가해선수 C씨의 폭력 행위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1항 3호 '폭력'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윤리센터는 피해선수를 보호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훈련을 배제시키며 부당한 조치를 취한 코치와 감독에 대해서도 '체육인 강령' 3조, 7조, 12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5조, 1항 6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또 다른 가해선수로 지목받은 D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주체육회가 B선수와 C선수에게 징계처를, 코치와 감독에게는 징계를 요청했다. 이어 대한항공 스포츠단에 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과 대한항공 소속 선수 및 지도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윤리센터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결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선수들과 코치, 감독에 대해 징계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제주체육회는 본지가 관련내용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1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체육회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도 오늘(18일) 대한체육회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지 받았다"며 "조만간 절차대로 스포츠공정위 안건을 올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징계가 결정된 사안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 회의를 해야 한다"며 "결정된 후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탁구팀 괴롭힘 사건은 피해선수 A씨가 입단부터 약 1년 동안 가해선수들에게 괴롭힘(폭행·폭언)과 따돌림, 감시를 당한 사건이다. 이후 이를 버티다 못한 A씨가 올해 2월5일 새벽에 외출했고, 코치와 감독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근무태만 및 무단이탈이라고 문제 삼으며 회사의 징계절차 없이 3개월 넘도록 부당한 근신처분(훈련배제)을 내리며 문제가 됐다.

교육부·7개 지자체 “빙상선수 인권보호 방안 권고 불수용”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빙상종목 운동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18일 제3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잇따른 체육계 성폭력 논란에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했으며,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에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원법상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역시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권위에 학원법 개정으로 과외 교습에 체육교습을 포함하라는 권고에 체육시설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체육시설법은 취지 자체가 체육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운영과정에서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유지 관리한다하는데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고 내용도 그 범위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빙상장을 소유한 22개 지방자치단체에도 빙상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학교 및 경기단체 등에서 징계받은 자와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부 수용한 강릉시와 성남시, 회신을 하지 않은 서울시, 의정부시, 광주시, 과천시 등 총 7개 지자체도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13개 지자체는 권고에 따라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은 "불수용으로 정리해 끝내기 보다는 취지를 살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은 "이행 계획을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무슨 근거로 미통지하는 것인지 유감스럽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권고에 따라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규정을 개선해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답했다.



“성전환 선수 호르몬 수치 기준 없어야” ... IOC 새 권고안 발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자격 조건에서 남성호르몬 수치 기준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IOC는 16일(현지시간) 성전환 선수와 성 발달 차이가 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술→남성호르몬 수치 등 기준 점점 완화

IOC는 200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성전환 수술 여부, 바뀐 성별의 법적 인정, 최소 2년간의 호르몬 치료 등의 요건이 붙었지만 성전환 선수의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결정이었다.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근육 발달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스포츠에 있어 타고난 생물학적 성으로만 기회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성전환 선수의 스포츠 대회 출전 허용에 길이 열렸다.

2015년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사라지고 대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혈중농도를 새로운 조건으로 삼았다.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의 경우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통제하고 일정 농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호르몬 수치만 갖고 경기력 예단 안돼...건강 문제도”

그러나 경기력과 관련해 다른 변수들의 통제 없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만 가지고 경기 성적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IOC는 이날 브리핑과 가상 질의응답을 통해 기존 지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IOC는 “여성들이 경기에 나서기 위해 호르몬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IOC는 최근 2년간 250명 이상의 선수 및 인권단체, LGBT 관련 전문가 및 과학자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새로운 권고안을 마련했다.

새로운 권고안은 ▲포용 ▲피해 방지 ▲비차별 등 10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 장 계속



성전환 선수들, 새 권고안 환영

다만 IOC는 이번 권고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 선수의 출전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경기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경기단체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전환 여자 선수들의 출전에 여전히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OC의 새로운 권고안에 성전환 선수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철인 2종 경기 세계선수권대회에 미국 대표팀 사상 첫 성전환 선수로 출전했던 크리스 모지어는 “IOC의 새로운 권고안은 어떤 선수도 내재된 이점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초점을 맞춘 출전 자격 기준은 위해하고 학대적 요소가 있는 성별 검사를 야기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캐나다 여자축구 대표팀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금메달을 땀던 성전환 선수 퀸도 IOC의 새 권고안에 대해 “획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선천적 남성호르몬’ 女선수 논쟁도…육상연맹 “지침 안 바꿔”

올림픽 금메달 2개(2012년 런던·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를 따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자 육상 중장거리 선수 캐스터 세메냐는 도쿄올림픽에서 주 종목 800m에 출전하지 못했다. 세메냐는 여자로 자랐지만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상태다.

세계육상연맹이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2km) 등의 종목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출전 요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세메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시술을 거부했고, 세계육상연맹과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mol/L(나노몰), 남성의 수치는 7.7~29.4nmol/L이다.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출전 기준은 5nmol/L 이하다. 세메냐 외에도 나미비아의 크리스틴 음보마 역시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선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

음보마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200m 종목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바 있다.

새로운 권고안을 세계육상연맹이 받아들이면 세메냐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시술을 받지 않아도 올림픽에서 원하는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세계육상연맹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질의에 테스토스테론과 관련한 현 지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리고 불법도박... 30대 체육회 직원 2심서도 실형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체육회 직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내 모 지역 체육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한 식당에서 보조금 외 용도로 식사비용 8만1000원을 쓴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15일까지 57회에 걸쳐 총 7900여만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인출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범행을 위해 A씨는 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고 동료 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통장을 훔쳐 1200만원을 보조금 관리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금원을 보충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529회에 걸쳐 합계 1억2852만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후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조금을 수개월에 걸쳐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 등 개인용으로 소비했고, 이 과정에서 체육회 명의의 출금전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했다”며 “체육회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관내 초교와 중학교에 운동장비와 훈련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유·무형의 피해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 수영선수 폭행한 코치 구속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61853470691

사기·절도 전과 체육회 직원, 수천만원 '보조금 횡령' 도박 탕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112015404251222>

'대한항공 탁구팀 괴롭힘 사건' 징계 한 달 '느긋한 문체부·대한체육회'... 피해선수만 '답답'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119500142>

[창간특집] 높아진 체육계의 위상, 계속 떨어지는 윤리 의식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11>

[K-스포노믹스] 김도균 회장 "스포츠 ESG, 선택 아닌 필수"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370>

바이든, 내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 시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357>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장애인체육인 인권 세미나 개최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850>

"체육계 인권 증진"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 공식출범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11220100162880010875&servicedate=20211121>

스포츠인권연구소, 스포츠인권포럼 개최 '스포츠와 성평등'

<http://osen.mt.co.kr/article/G111169686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